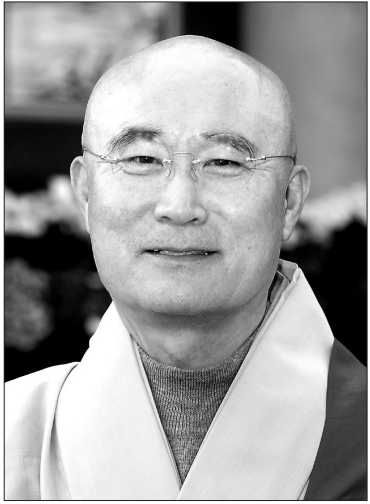


미주 전법순례를 마치고

해외전법 네트워크 구축, 시급한 과제



지연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포교원에는 10개의 전법단이 있다.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병원, 교정교화, 경찰, 군, 장애인, 체육인, 국제전법단이 그것이다. 그중에 미비한 활동 중인 국제전법단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모색했고, 1~2년의 계획을 세운 뒤 국제전법단의 첫 해외전법순례를 무사히 마치고 회향할 수 있었다. 이번 해외전법순례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구체적인 미주지역 해외전법 네트워크 구축

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LA에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지만 실상은 미비한 수준이었다. 대부분의 개인 사찰이 유기적인 연대 없이 개인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런 실상에 사찰들이 불자들에게 어떤 포교와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미국과 캐나다 일대의 미주사찰을 둘러보았다. 대부분의 미주 사찰들은 기도 위주로 운영되고 있었다. 전법단이 찾아가 불자들과 함께 참선(명상)을 하는 등 여러 활동을 함께해 해외불자들의 좋은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의 부재를 절감했다. 전문포교사와 지도사의 인력도 턱 없이 부족했다. 스님들은 1인 10역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당연히 교육과 포교의 질은 높을 수가 없었다. 하여 포교원의 내년 주 중책으로 삼아야 될 만큼 해외 네트워크 구축에 힘

쓸 요령이다. 해외현지에 능력있는 불자들이 많다. 그들을 포교원 내 디지털 대학과 현지불교대학을 연결 인터넷 매체를 통해 강의를 송출하는 형식으로 그들을 전문 포교사와 지도사로 육성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상황은 아주 긍정적이다. 불교대학 설립에 희망하는 시가고 불타사 같은 경우는 신도수와 인적 자원으로 풍부하고 설비도 잘 되어있다. LA와 뉴욕 불광사, 밴쿠버에서도 불교대학 설립에 대한 여건과 관심이 모자라지 않다. 이번 해외순례 이후 고무적으로 불교대학설립에 대한 신심이 곳곳에서 들어오고 있다. 이것은 중당과 해외사찰 모두 고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 결과 국제전법단이 미국 동부, 서부, 캐나다까지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앞 서 말했듯이 지도법사 한분이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을 서포터 할 수 있도록 전법단 밑에 지원단을 두기로 했다. 현지에서 표교 인력으로 많은 영력을 갖추신 분들이 있

다. 그분들을 전법지원단으로 심사해서 스님과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묶어드리고 한국에 국제 전법단과 연결하는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현지에서 어린이, 청소년 법회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국내처럼 체계적인 방법으로 양성해서 조직적으로 만들어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해외 현지 사정에 맞춰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재의 영문 번역을 비롯한 영어 법회나 강설도 갖추어야 할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한 번에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순 없지만 이번 해외전법순례를 통해 중당 내에서 미주지역을 포함한 해외 사찰과 불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둔다.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이번 해외전법순례로 그동안 많은 소외감을 느꼈을 미주지역 불자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중당 내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포교 정책을 보여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社說

불교 힐링콘텐츠가 주목받는 이유

몇 년 전부터 힐링 바람이 불면서 명상, 템플스테이, 사찰 음식 등 불교계의 각종 콘텐츠들이 일반인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불교계가 운영하는 연수프로그램의 가능성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주목받고 있어 화제다.

정부 각 기관 및 지자체가 불교계의 장점을 활용한다면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불교문화사업단이 7월 14일 서울가정법원과 보호소년 및 가족들에게 템플스테이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해 여성가족부, 도박관리센터 등도 불교문화사업단과 함께 정신 및 감성노동자, 도박중독자, 가족 및 청소년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최근에는 법무부도 보호관찰자를 위한 지원을 위해 역시 사업단과 협약을 맺었다. 중앙 부처 뿐만 아니라 일선 사찰과 지자체의

협조관계도 높아지고 있다.

보은 법주사의 경우 7월 9일부터 충북교육청과 교직원들을 위한 '행복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직원의 스트레스 해소 및 심성순화 교육법을 익히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불교계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공공기관의 수요도 늘고 있다.

금년 만해도 경찰청, 세종시 기재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서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연수신청도 함께 대폭 늘고 있다.

불교계가 이 같은 시대 요구에 발맞추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이를 통해 포교 활성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일회성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결국 참가자들이 실행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게 적극적인 포교활동과 불교콘텐츠들을 활용해야 된다.

나를 돌아보는 여름 휴가 보내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종식되는 분위기다. 메르스가 진정세를 보이자 도심과 인근 유원지에 다시 사람이 몰리기 시작했다.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여름상품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백화점 등의 매출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메르스 공포'로 집 밖으로 나오지 않던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침체된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메르스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곳은 관광업계다. 12만 명 이상의 해외여행객이 방한을 취소하고 각 지역 행사와 모임 등이 취소돼 관광버스가 멈춰서는 등 메르스 사태 동안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불교계도 여름 휴가를 맞는 국민들을 위해 다양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산사로의 여행을 유도하고 있다. 여름의 푸른 산사에서만 만족할 수 있는 시원한 물놀이와 숲 명상, 생태 학습뿐만 아니라 영어, 한자 등 특별 프로그램, 청소년 심심수양프

로그램, 놀이 및 성장 프로그램, 가족과 일반인을 위한 휴식형 프로그램 등 다채롭다.

최근에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는 한 광고문구처럼 '조용한 휴가'를 선호하는 20~30대 직장인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수기 인파와 바가지 요금, 물가 부담 등이 싫어서라는 이유가 많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심리적 부담과 피로가 넘치는 사회 풍조가 반영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머무르다'라는 뜻의 '스테이(stay)'와 휴가를 뜻하는 '베케이션(vacation)'의 합성어인 '스테이케이션'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질퍽한 녹음과 맑은 새소리, 산속 바람결에 일렁이는 청아한 풍경소리. 고즈넉한 여름 산사는 여름철 폭염을 피해 조용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이다.

날잡한 피서지나 해외 여행 대신 안전하고 마음 편한 산사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한해 성장한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불자 세상보기

50만원 해임과 성완중 리스트



정 천 구

서울디지털대 교수

서울 한 구청의 국장이 50만원어치 상품권을 받았다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8월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 없이 공무원이 다른 사람에게 1000원 이상 받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명령 '박원순법')에 따라 7월 1일 5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서울 구청 공무원을 '해임' 처분한 것이다.

새 행동강령이 시행된 이후 지난 3월까지 6개월간 적발된 공무원 비위는 5건으로 이전 6개월의 적발 건수 35건과 비교해 85%나 감소했다고 한다. 철저한 원칙을 세우니 공무원 비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던 셈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한 많은 법령이 있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법들이 문제가 되곤 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처벌 규정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법의 적용은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운영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했던 것이다.

다시 돌아와 요즈음 정치권을 보자. 정치권은 국회법 개정안의 뒷수습으로 분주하다. 성완중 전 회장이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메모가 정국을 갈라놓은 것이 4월 9일인데 그 사이 4·20 재보선과 메르스 사건 등에 묻혀 벌써 과거의 일이 되었다.

이런 시점에 검찰은 성완중 리스트 특별수사를 꾸리자 82일 만인 지난 7월 2일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 2인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성완중 메모에는 '김기춘 10만 달러, 허태열 7억 원, 홍준표 1억 원, 부산시장 2억 원, 홍문종 2억 원, 유정복 3억 원, 이병기, 이완구'라고 적혀 있었다. 이 중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를 뺀 나머지 6명은 모두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다.

특별수사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73)씨가 2007년 말 특별사면 청탁 대가로 5억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에게 남은 일은 성완중 전 대표로부터 각각 3천만 원과 1천만 원의 불법정치자금 받은 혐의가 있으나 출석요구에 불응한 김한길

전 새정치연합 공동대표와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에 대한 계속 수사이다. 2억 원의 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김근식 최고위원에 대한 계속 수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힘들게 되었다.

이러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성완중 자살사건이 터졌을 때 국민이 느꼈던 사건 의 비공정과 거리가 멀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는 "친박 권력실세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 혐의 없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며 "스스로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정치검찰임을 자백하며 검찰 사망선고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문대표의 비판도 그 자신이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문 대표는 그가 청와대 핵심 참모로 있던 참여정부에서 성완중 전 회장을 두 번이나 사면 복권했다는 사실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많은 국민들은 성완중 로비가 여권 실세들에게만 한정되지 않았으며 여야 구분 없는 정치개혁 문제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다.

정치개혁의 대한 국민적 관심은 저버린 채 양측이 서로 몰타기 논란에 머물고 있다. 문제는 '축소 수사'에 있으며 사건을 정치개혁의 단초로 삼아야 한다

는 국민적 바람을 외면했다는 점이다.

여야는 국정의 발목을 잡으면서 자기들의 정치적 이득만 챙겼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3월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이하 아문법)이다. 야당이 끈질기게 요구해온 5조 8천억 원(민자 1조 7천억 원) 예산의 아문법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야당과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을 함께 통과시켜준다는 대가로 빅딜을 한 것이라 한다. 그러나 결과는 아문법만 통과시켰다.

이런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는 나라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칙을 세워야 한다.

세월호 사건에서 국민은 판피아의 존재, 성완중 사건에서는 부패기업과 정치인의 엄청난 커넥션에 경악했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 해결과 국가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는 괴물이 정치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임이 확인되었다.

야당은 야당대로 책임이 있었지만 이런 모든 문제의 해결과 정치개혁의 책임은 결국 국정을 책임 맡은 대통령과 여당의 몫이다. 국정쇄신과 정치개혁을 이룩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살리는 것은 원칙을 바로 잡는 데서 시작될 것이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사주팔자(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봐야 남을 수 있는 비책(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무복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어날 때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 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연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독, 기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